



한국후지제록스, 디지털인쇄사업 간담회·후가공 솔루션 세미나 개최 디지털인쇄 ‘올인원 솔루션’ 제시...8개사 후가공 솔루션 소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우에노 야스아키, www.fujixerox.co.kr)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한국후지제록스 본사 쇼룸에서 ‘2015년 디지털인쇄사업 전략 간담회’와 ‘후가공 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컨설팅하는 조직으로 개편...전략사업본부 신설

한국후지제록스는 ‘2015년 디지털인쇄사업 전략 간담회’에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인쇄사업 전략으로 ‘올인원(All in one)’ 솔루션을 제시했다.

‘올인원(All in one)’ 솔루션은 단순히 장비 판매를 위한 목적이 아닌 인쇄·출판 고객에게 효율적인 사업 계획과 판매전략을 컨설팅하는 조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장비, 솔루션 제안을 비롯해 사업환경 조성 및 확대를 일괄적으로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이런 변화를 통해 한국후지제록스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한국후지제록스 내 전략사업본부를 신설하고 PS(Production Service)영업부도 전략사업본부에 포함시켰다.

고객 적합 비즈니스 모델 제시·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후지제록스가 지향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이야기를 주고 받는 소통이 아닌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후지제록스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파악한 후, 그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더불어 추가로 발생하는 고객 요구사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주력 제품인 컬러 1000i 프레스(Color 1000i Press)를 소개했다. 컬러 1000i 프레스는 세계 최초로 제로 그래픽 방식의 ‘골드’와 ‘실버’ 드라이잉크를 제공하는 디지털 인쇄기이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 미리 출력된 인쇄물에 금·은박을 입히는 것과 달리 금색, 은색의 그라데이션 표현 및 가변출력이 가능하다.

한국후지제록스 이영훈 PS마케팅팀 팀장은 “한국후지제록스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인쇄 장비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발돋움하려고 한다”며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국내 소비자의 사랑을 받은 후지제록스가 새로운 가치와 함께 도약하는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POD 후가공 장비·솔루션 소개

간담회 이후에는 후가공 솔루션 세미나가 자유로운 분위기에 서 진행됐다. 한국후지제록스는 매 분기마다 인쇄산업에 종사하는 고객들을 초청해 디지털인쇄사업 관련 세미나와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후가공 솔루션’이다. 8개의 업체가 참여해 POD에 필요한 다양한 후가공 장비와 상업용 인쇄사업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소개했다.

참여업체들은 후지제록스 쇼룸에 준비된 부스에서 출력용지 주림기, 접지기, 오시기 등 다양한 후가공 장비 및 솔루션을 전시했으며, 제품 설명과 시연을 비롯해 고객이 직접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와이피엘, 위플러스, 로체상사 등 참가

이날 행사에는 와이피엘, 위플러스, 로체상사 등의 하드웨어 업체가 함께 참가했다. 와이피엘은 장당 오시라인을 최대 16회로 설정할 수 있는 자동오시기와 분당 180장의 명함을 절단할 수 있는 명함재단기 등을 선보였고, 로체상사는 명함, 엽서, 접지선, 미싱선 등 21개 종류의 옵션 슬리터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커터기와 2가지 종류의 와이어재단기 등을 선보였다.

위플러스는 자체 기술로 개발된 펼침과 유연성이 뛰어난 PUR 제책기를 선보였다. 또한 최대 700장의 봉투를 적재해 한 장씩 자동으로 봉투를 공급해주는 ‘디지털 봉투프린트’를 소개했다.

소프트웨어 업체로는 아이락커뮤니케이션, 이웰, 인성데이터 등이 참여해 디지털인쇄와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종합 POD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인 아이락커뮤니케이션은 디지털인쇄 전문 분량정보사이트인 블루팟(BluePOD)을 선보이며 고객의 관심을 끌었고, 이웰은 인쇄물 주문 홈페이지 구축 솔루션, 인성데이터는 사진 편집 제작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동방페이퍼(주)가 디지털인쇄용지 전문 브랜드 도리고(DORIGO)를, 우리풍경이 한지, 폴리마를 선보였다.

한국후지제록스 PS영업사업추진부 송승범 차장은 “매년 후가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객들이 업체별 홍보 부스에서 장비를 살펴보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협력사들의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후지제록스는 오는 9월에는 디지털 웹프린팅(Digital Web-Printing)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세미나 참여 대상 업체

하드웨어

- (주)와이피엘 자동오시기, 접지기, 멀티명함재단기 외
- (주)로체상사 제책기, 중철기, 와이어링 제책기, 접지기 외
- (주)위플러스 PUR제책기, 라미네이터, 명함재단기 외

소프트웨어

- 아이락커뮤니케이션 P.O.S Web솔루션(인쇄물 주문 홈페이지 구축 솔루션)
- 이웰 P.O.S Web솔루션(인쇄물 주문 홈페이지 구축 솔루션)
- 인성데이터 Photo Editor (사진 편집 제작 솔루션)

기타

- 동방페이퍼 지류
- 우리풍경 한지, 폴리마



1. 간담회에서 한국후지제록스의 디지털인쇄사업 전략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장은구 부사장



2. 후가공솔루션 세미나에 참가한 소프트웨어 업체